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

정일홍*

요 약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수도를 미학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서 공수도가 경호무도로서 가지고 있는 미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공수도, 미학 관련서적과 자료, 논문을 수집, 참고하였다. 첫째, 공간미이다. 둘째, 시간미이다. 셋째, 통일미이다. 넷째, 대칭미이다. 다섯째, 균형미이다. 여섯째, 조화미이다. 일곱째, 곡선미이다. 여덟째, 리듬미이다. 아홉째, 도덕미이다. 이러한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을 연구함으로써 내재적 아름다움과 철학, 윤리를 갖춘 경호원과 경호무도로서 발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Aesthetics of Karatedo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Jeang Il Hong*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Aesthetics of Karatedo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by explore the aesthetics of Karatedo being invigorated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The first one is beauty of space. The offense and defense of Karatedo as Security Guard Martial art are to fill in, to come out and to move from side to side. It help to have higher judgment. Secondly, it is beauty of time. It is subjective time felt by people training Karatedo. The third one is beauty of unity. We can see formal beauty of unity such as white dogi or black suit of security guard and dynamic beauty of unity such as quick and slow, strong and soft or movement of hand and foot. The forth one is beauty of symmetry. It can be shown strongly by triangle or moving of team kata and triangle between athletes and referee at Kumite competition. The fifth one is beauty of balance. It can by shown well by continual Karatedo kick motion, jumping kick motion at Kumite, jumping motion, quick turning, or moving such as standing on one foot at kata. The sixth one is beauty of harmony. The whith Dogi and blue or red guard at Kumite competition shows harmony of yin and yang and we can see also various harmony such as strong and soft, quick and slow, or high and low at Kata competition. The seventh one is beauty of curve. We can see beauty of straight line and curve by watching line of hand and foot from starting point to ending point. Specially, moving line of white dogi shows strongly beauty. The eighth one is beauty of rhythm. The rhythm is specified in Kumite kata competition rules. It is also shown by basic step, left and right step, various moving of foot, continual offense of hand or continual rhythm of offense and defense. The last one is beauty of ethics. It is manner, duty as human, and moderation being important in Karatedo.

Key words : karatedo, Aesthetics, security guard martial art

접수일(2013년 5월 8일), 수정일(1차: 2013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2013년 5월 29일)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1. 서 론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임무는 위해자로부터 위해기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경호 및 방어경호의 측면에서 선발경호와 근접경호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되는데, 특히 경호무도는 이러한 경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전문 근접경호원의 몸을 수단으로 하여 위해자의 공격을 방어 및 제압하는데 필요한 무도이다[1].

현재 청와대 경호처, 경찰청의 무도가산점이 되는 공통 종목은 공수도, 태권도, 검도, 유도, 우수 등이 있다. 이 중 공수도는 손과 발을 이용한 방어와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던져서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 현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무도라고 할 수 있다. 경호원의 안전과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이상적인 공수도는 대학의 무도, 체육 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경찰경호 관련학과에서 지속적으로 공수도, 경호무도, 경찰무도, 호신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공수도 수련을 통한 유단자가 배출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몸짓 또는 움직임이 예절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이치가 포함되어 현재의 무도가 되었고, 이러한 무도의 신체적인 체력단련, 방어와 공격의 기술향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호무도로서 다양한 철학적 가치가 있고 이러한 철학적 가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볼 수 있고, 기술이나 체력은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 6호조76자가 미숙하거나 행선지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철학분야의 연구가 중요하고, 이 연구를 통해 경호무도 교육에 적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분야이다.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은 공수도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멋, 품격은 물론 내면적 정신작용의 느낌이 전환한 신체의 표현, 예술화된 공수도를 통하여 인간의 인식능력, 창조능력, 심미능력 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미학적 접근을 통해 경호무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철학 중 경호무도의 미학분야의 연구는

정연완, 홍은선(2009)[2]의 ‘경호무도 구성 원리의 미학적 탐색’, 임일혁(2005)[3]의 ‘태권도 미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학덕, 김찬룡, 김정훈(2010)[4]의 ‘태권도 미학’ 이상호, 이동건(2010)[5]의 ‘검도실천자의 미적 체험구조’ 등이 연구가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공수도에 대한 연구는 황영성, 정일홍, 권오륜(2009)[6]의 내재적 가치에서 미적 가치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아직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수도 미학을 탐색해 봄으로서 공수도가 경호무도로서 가지고 있는 미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무도, 무도, 공수도, 미학 관련 논문, 서적 및 간행물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고, 선행된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다.

2. 공수도의 정의와 이해

공수도는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도로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막고,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써 정신수양을 겸한 무도이며, 위급시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이자 심신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견도록 하는 무도스포츠이다. 현재 188개국의 1억여 명이 넘는 수련생들이 수련하는 국제적인 무도스포츠로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단련, 건강, 호신, 여가생활, 군, 경찰, 경호와 경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점차 보급되고 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단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수양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13개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2003년 준가맹, 2007년 정가맹종목이 됨에 따라 전국체전 전시종목과 동호인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정식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공수도는 공수, 당수, 권법 등으로 불렸으며, 기원은 인도 발생설, 중국 발생설, 오키나와 발생설, 한국

발생설 등 다양하지만[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외부로 부터의 생존을 위한 무도가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하듯이 군자의 무도로서 윤리를 포함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공수도의 기술은 기본자세 및 동작, 형, 대련, 격파, 낙법 등으로 구성된다. 형(形)은 과거의 명인 또는 달인이라는 무사 또는 공수인이 수련 또는 실전을 통한 성과를 기억해두기 위해 기본자세를 토대로 구성되며 막기, 치기, 지르기, 차기, 꺾기, 던지기의 기술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구성한 것이다. 대련은 형 수련에서 습득한 기술체계를 이용하여 두 선수간의 겨루는 것을 말한다. 대련은 기본대련, 약속대련, 타겟대련, 새도우대련, 자유대련, 다수인대련 등이 있다. 낙법은 유도기술과 동일하며, 어떠한 장애물이나 상대의 공격기술 그리고 스스로가 넘어졌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착지방법으로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방낙법, 구르기 낙법 등이 있다. 격파는 수련으로 익힌 손발의 기술체계를 송관, 기와, 벽돌 등의 단단한 물체를 통해 실제로 단련의 정도 그리고 그 위력을 실현해 보는 총체적 표현[17]이라고 정의하고 Masayuki Hisataka는 수련자의 기술과 정신 집중력을 시험하는 하나의 수단[18]이라고 정의했다.

3. 경호무도로서의 공수도

경호무도란 우발상황이나 불특정 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정신수양은 물론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막고, 피하고,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로서 공격자의 공격의 방어와 제압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인간다운 길을 견도록 하는 운동이다[19].

경호무도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인 운동과는 달리 많은 노력과 숙련으로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습득하는 무술로서 공격형이 아닌 방어형 무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공수도는 선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공수도의 내재된 기술의 총합인 수많은 형은 모두 방어로 부터 시작된다.

경호업무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는 곧 경호대상자

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경호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경호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그 의미를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 경호무도는 군대전술이나 테러전술과 같은 공격개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보호행동에 들어가는 방어와 보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손기술, 발기술, 몸기술 등 모든 술기의 체득은 물론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의 복합적인 체력단련과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손발 등 신체 또는 도구 등을 역학적인 원리에 의한 사용뿐만 아니라 기세, 언어 등을 이용한 무형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20]. 공수도 수련을 통한 체력단련은 물론 신체 모든 부위를 이용한 방어와 제압하는 기술이 형과 대련으로 숙달되어 지는데 형은 방어와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고, 대련 또한 상대의 움직임과 위치, 신체의 쓰임새를 숙달시킨다. 보다 고도의 훈련을 위해 좋은 자세, 힘의 포커스, 속도, 힘, 균형, 리듬, 호흡, 동작의 강유를 중시한다. 중심이동이나 판단력, 침착성, 감각 등의 정신전력 향상시킴으로 경호 무도로 이상적이다.

4. 미학의 이해

미학은 미의 학문적 접근을 말하며, 미학의 역할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한 미적 관계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미학이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어의 Aesthesis, 즉 지각, 감성적인 것에서 유래하였다. 어원적으로 보면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테티카(Aesthetica)' 또는 '에스테에틱(Aesthetic)'이 미를 논하는 학문, 즉 미학을 의미하는 용어로 발전된 것이다[4]. 竹内に 의하면 미학의 대상이 반드시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가치, 감각면과 정신면의 통일, 감성과 이성의 조화에서 성립된 것에 미적 가치를 부여한다[21].

미학은 독일의 바움가르텐(A.G. Baumgarten, 1714~62)에 의해 1735년 '시(詩)에 관한 몇몇의 철학적

성찰'에서 비로소 생겨난 새로운 학문으로서 지칭된다. 197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에 의해 철학사상 최초로 미학이 강의 되며, 이로부터 1750년에 간행된 미완의 라틴어 저서 '미학(美學)'이 출현한다. 그의 저서에서 천부적인 아름다운 정신, 미적 품성, 그리고 이에 의해 아름다운 사유 속에서 산출되는 시와 예술이 중심을 이룬다. 마르크스(Marx)에 의하면 "미학이란 현실에 대한 인간의 미적 관계, 특히 사회의식의 특수 형태으로써 예술의 발전에 대한 일반적 법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다[22].

동양적 의미의 미학은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묘사하기 이전에 인간의 정신적 순수성, 도덕성, 성실성이 예술 창작의 바탕이 되기를 요구한다. 이렇듯이 서양의 관점의 미학은 '미(美)'를 탐구하지만 동양미학은 '도(道)와 덕(德)'을 탐구한다[23].

최현주(2009)[24]는 세 가지 미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도덕미를 포함하는, 따라서 미학과 아울러 윤리학까지 포괄하는 가장 광의의 의미, 둘째,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순 미학적인 의미의 미, 셋째, 미학적 의미 이되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사물에만 국한되는 미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이정학(2001)[25]은 행위자와 관찰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상호, 이동진(2010)[5]은 공간미, 존재미, 기술미, 시간미로 나누어 미적체험을 설명하였다. 김학덕, 김찬룡, 김청훈(2010)[4]은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의 세가지로 범주화 시켰고, 안용규(2010)[11], 정연완, 홍은선(2009)[26]는 통일미, 대칭미, 비례미, 균형미, 대비미, 조화미, 층차(점층미), 곡선미, 리듬미, 다양성과 통일로 구분하였다.

5.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은 <표 1>과 같이 신체의 통일미, 대칭미, 균형미, 조화미, 곡선미, 리듬미, 마음(정신)의 도덕미, 환경의 공간미, 시간미로 구분하였다.

<표 1> 공수도의 미학적 분류

분 류	미학구분
환 경	공간미, 시간미
신 체	통일미, 대칭미, 균형미, 조화미, 곡선미, 리듬미
정 신	도덕미

첫째, 공간미이다. 경호무도인 공수도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규정화된 경기장뿐만 주차장, 연설장, 만찬장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련이 된다. 경호업무를 위한 주위환경을 파악하고, 상대의 공격에 단시간외의 냉철한 판단력과 민첩한 움직임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수도의 형의 설명과 부합된다. 나카야마 마사도시(中山正敏, 1995)는 "사방팔방에 적을 가상하고 정해진 연무선(演武線)을 전진후퇴, 혹은 전신(轉身)하여 연무하는 것이다" 공간과 공간의 이동의 중요성을 정의했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공간을 이용하는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방어와 공격은 공간의 채움과 빠짐, 전후와 좌우를 비롯한 전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도장에서 수행할 때 자신의 수련과 반성 그리고 기술을 완성을 위해 홀로 수련할 때 느끼는 공간미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간미이다. 시간은 객관적이다. 하지만 공수도 경기에서 남자는 3분의 경기를 한다. 그 3분을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으로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승패가 나타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짧은 수도 길수도 있다. 다른 예로 경호상황에서 위해자가 경호대상자를 위해하려고 했을 때 공수도의 기술 중 수도를 이용한 방어와 한 번에 제압을 했을 때는 시간이 짧지만 혹시나 실패로 여러 차례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순간순간이 위급하고, 이 상황이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간미는 실천자로 하여금 느끼는 주관적 시간이다.

셋째, 통일미이다. 통일은 정제 또는 정제일률이라 칭하기도 하고, 반복 혹은 획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7]. 공수도에는 단체형의 경기가 있다. 6분 이내에 통일성을 가지고 형을 행하고, 그 형에 내재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분해가 이루어진다. 형 자체만 봐도 아름다움이 있는데 통일성을 갖춘 3명의 형 선수들의 시연과 형에 내재된 다양한 대응능력을 함으로써 승패가 진행된다. 공수도의 흰색의 도복, 경호시에는 검정 계열의 정장으로 형식적인 통일미와 빠르고 느림, 강함과 부드러움, 손과 발의 동작 등 동적인 통일미는 공수도의 주요 미학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대칭미이다. 균형이라고도 하며, 상하좌우 혹은 방상현상이 같으며, 각 구분 사이가 서로 어울리고, 알맞은 것을 가리킨다. 2인 경호, 3인 경호, 4인 경호 등 다양한 인원과 대형은 다르지만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칭미를 보이고, 공수도 단체형에서의 삼각구도와 이동, 대련 경기시 심판과 양 선수간의 삼각구도는 대칭미를 부각시켜 준다.

다섯째, 균형미이다. 공수도 연속발차기나 도약해서 발차기, 엔피, 운수, 간쿠소의 형에서의 도약동작과 간카쿠(진포) 형의 외발서기, 대련에서 다리걸기나 던지기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손과 발의 공격이 들어가는 3점 득점기술의 장면,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 한발을 들어 앞후리거나 뒤후리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균형미에 감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향에서 위해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90도, 180도, 270도 360도 등 민첩한 방향전환과 스텝이동은 더욱더 균형미를 보여준다.

여섯째, 조화미이다. 공수도 도복의 색깔인 백색에는 검정색, 홍색, 청색의 벨트가 다 조화롭고, 대련경기시에 청색과 홍색의 벨트와 글러브, 다리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음과 양의 조화를 보여준다. 현장 경호에서 경호대상자의 호흡을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경호팀의 경호대상자 보호하는 인원과 위해자를 제압하는 인원의 팀워크가 경호의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도 형에서 강함과 부드러움, 빠름과 느림, 높고 낮음 등 다양한 조화미를 볼 수 있다.

일곱째, 곡선미이다. 곡선의 아름다움은 직선과의 차별에서 나온다. 버크는 “미는 반드시 직선을 피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완만하게 직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6]. 하지만 직선의 단조로움과 빠름과 반대로 곡선의 부드러우면서 우아한 선은 공수도의 모든 형을 행할 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공수도 발차

기의 끝선, 공수도 형에서의 손과 발동작의 시작과 끝선을 보면 직선미와 곡선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특히 흰 도복이 움직이는 선은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킨다.

여덟째, 리듬미이다. 무용이나 음악에서만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수도의 연속 정권치기 등의 기본 동작과 발차기는 지도자와 수련생간의 구령과 기합 그리고 움직임의 리듬을 타며, 특히 공수도의 형은 리듬이 없는 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규정에 리듬을 명시하고 있고, 대련에서도 앞뒤 기본 스텝에서 좌우스텝, 다양한 발의 움직임과 손의 연속공격, 방어와 공격의 연속적인 리듬미를 볼 수 있다.

아홉째, 도덕미이다. 공수도는 무도이고, 무도에서 중시되는 예절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절제이다. 모든 시작과 끝은 ‘예’로 시작하여 ‘예’로 끝난다.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공경, 선배의 존중, 동료간의 우애 등을 강조하는 공수도 수련은 인내와 겸손을 주요한 덕목으로 수련되어 진다. 경호무도로서 중요한 절제의 대표적인 예로 공수도 경기는 상대와의 대련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끝내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호원들은 아무리 미운 상대 즉 위해자라도 제압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성을 잃어서 더 이상의 공격이나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수도의 미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공수도는 상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아름다운 무도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경호무도로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공수도 미학을 탐색해 봄으로서 공수도가 경호무도로서 가지고 있는 미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공수도, 미학 관련서적과 자료, 논문을 수집, 참고하였다.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은 신체의 통일미, 대칭미, 균형미, 조화미, 곡선미, 리듬미, 마음(정신)의 도덕미, 환경의 공간미, 시간미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간미이다.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방어와

공격은 공간의 채움과 빠짐, 전후좌우를 움직이며,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특히 도장에서 수행할 때 자신의 수련과 반성 그리고 기술을 완성을 위해 홀로 수련할 때 느끼는 공간미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간미이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짧을 수도 길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간미는 실천자로 하여금 느끼는 주관적 시간이다.

셋째, 통일미이다. 공수도의 흰색의 도복, 경호시에는 검정 계열의 정장으로 형식적인 통일미와 빠르고 느낌, 강함과 부드러움, 손과 발의 동작 등 동적인 통일미는 공수도의 주요 미학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대칭미이다. 공수도 단체형에서의 삼각구도와 이동, 대련 경기시 심판과 양 선수간의 삼각구도는 대칭미를 부각시켜 준다.

다섯째, 균형미이다. 공수도 연속발차기나 도약해서 발차기, 형에서의 도약동작과 형의 외발서기 등 민첩한 방향전환과 스텝이동은 더욱더 균형미를 보여준다.

여섯째, 조화미이다. 공수도 백색도복과 대련경기시에 청색과 홍색의 보호대의 음과 양의 조화를 보여주고, 공수도 형에서 강함과 부드러움, 빠름과 느림, 높고 낮음 등 다양한 조화미를 볼 수 있다.

일곱째, 곡선미이다. 공수도 형에서의 손과 발동작의 시작과 끝선을 보면 직선미와 곡선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특히 흰 도복이 움직이는 선은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킨다.

여덟째, 리듬미이다. 공수도의 형은 리듬이 없는 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규정에 리듬을 명시하고 있고, 대련에서도 앞뒤 기본 스텝에서 좌우스텝, 다양한 발의 움직임과 손의 연속공격, 방어와 공격의 연속적인 리듬미를 볼 수 있다.

아홉째, 도덕미이다. 공수도는 무도이고, 무도에서 중시되는 예절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절제이다.

이러한 경호무도로서 공수도의 미학을 연구함으로써 외형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철학과 윤리, 아름다움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수련한다면 공격호와 사경호의 현장에 근무하는 외재적 기술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재적 아름다움과 철학, 윤리를 갖춘 경호원과 경호무도로서 발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박기범, 김태민, "한국 합기도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 대한무도학회지, 12권, 3호, 343-359, 2010.
- [2] 정연완, 홍은선 "경호무도 구성 원리의 미학적 탐색", 한국재난정보학회, 5권, 2호, 108-122, 2009.
- [3] 임일혁, "태권도 미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3권, 3호, 1-12, 2005.
- [4] 김학덕, 김찬룡, 김청훈 "태권도 미학", 대한무도학회, 12권, 2호, 43-53, 2011.
- [5] 이상호, 이동건, "검도실천자의 미적 체험구조",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8권, 3호, 1-18, 2010.
- [6] 황영성, 정일홍, 권오륜, "공수도의 내재적 가치",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 17권, 2호, 1-10, 2009.
- [7] 김경지, "태권도경기의 과학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논총, 6권, 139-149, 1993.
- [8] 김주훈, 김길평, "태권도와 공수도의 역사성 비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권, 1호, 51-61, 2003.
- [9] 대한공수도연맹, 공수도지도자교육자료, 부산, 대한공수도연맹, 2008.
- [10] 류호평, "한국 태권도 심사제도 변천의 역사적 고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 [11] 안용규, "태권도사관 정립을 위한 제언", 태권도사관 정립과 태권도 정신도를 위한 세미나, 대한태권도협회 연구개발위원회, 1997.
- [12] 임관인, "태권도 품새와 태극권 투로의 비교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00.
- [13] 전인배, "공수도의 유래와 명칭 변경",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 [14] 최영의, "실전 공수도교법", 서울, 서림문화사, 1993.
- [15] 全日本空手道聯盟, "空手道形教本", 東京, 株式會社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1981.
- [16] 中山正敏, "空手道 實踐", 東京:株式會社永岡書店, 1995.
- [17] 이경명, "태권도", 서울, 대원사, 1997.

- [18] 김정행, 최종삼, 김창우, "무도론", 서울, 교학연구사, 2002.
- [19] 이상철, 김태환, 박준석, "경호무도", 서울, 도서출판 흥경, 2004.
- [20] 오정주, "경찰체포 호신술 교본", 서울, 도서출판 인동, 1999.
- [21] 김창룡, 임일혁, "태권도와 스포츠의 미적 비교", 대한무도학회지, 3권, 1호, 285-293, 2005.
- [22] 임일혁, 김중현 "태권도 미학의 가성서에 관한탐색", 대한무도학회, 13권, 2호, 27-38, 2011.
- [23] 임일혁, 김지혁, "태권도 경기 관중의 미적체험", 한국체육철학회, 16권, 4호, 173-187, 2008.
- [24] 최현주, "미학적 접근을 통한 무용 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17권, 2호, 339-354, 2009.
- [25] 이정학, "스포츠 활동에서의 인간 움직임에 관한 미학적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 16권, 1호, 147-157, 2001.
- [26] 안용규, "아르헨티나탱고의 미학적 탐색", 한국체육철학회, 18권, 3호, 243-259, 2010.
- [27] 정연완, 홍은선, "경호무도 구성 원리의 미학적 탐색", 한국재난정보학회, 5권, 2호, 108-122, 2009.

[저 자 소 개]

**정 일 홍(II-Hong Jeang)**

2002년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사
 2004년 부산대학교 체육학석사
 2010년 부산대학교 체육학박사
 2011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email : karateka@hanmail.net